

작품 내용

제 목	가치가 사라진 그림
내 용	해가 지고 천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건만, 나는 오늘도 붓을 놓지 못한 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달을 희미한 등불 삼고 붓을 들어, 실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머릿속에만 있던 학과 빼곡히 이어진 산들, 잔잔한 호수를 종이 위에 한 획 한 획 옮기고 있었다. 계속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나는 붓을 놓고 내가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 그림은 내가 그렸던 수많은 그림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을 하루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림을 품에 꼭 끌어안고 짧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나는 해가 뜨자마자 그림을 품에 안고는 마을 어귀로 달려 나갔다. “야! 삼아, 이거 봐! 어떠냐?” 삼이는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 보더니 입을 떡 벌렸다. “히익, 이 그림 이름난 화공이 그린 거라 해도 믿겠어!” 삼이는 어찌 이런 재주를 숨기고 있었냐고, 화공을 해도 되겠다고 연신 감탄했다. 삼이의 큰소리에 일어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모두가 내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 대단한 화공 하나 나오는 거 아니여?” “그림이 꼭 살아있는 것 같네.” 평생 노비로 살아온 내가 이 순간만큼은 신분도 서러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욕심 많고 물욕적이기로 소문난 조덕필 영감이 성큼성큼 걸어오며 호통을 쳤다. “아니, 누가 아침부터 큰소리를 내는 것이냐!” 영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흩어졌고, 삼이 또한 서둘러 자리를 피하였다. 나는 그림을 챙기느라 미처 달아나지 못해, 황급히 그림을 내 몸 뒤로 숨기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영감님” 그렇지만 영감은 이미 내가 어떤 것을 숨기는 모습을 본 모양이었다. “내게 보이면 아니 될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영감은 눈을 흘기며 다가와 호통을 쳤다. “어서 내놓아 보거라!”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림을 보여주었다. 영감은 그림을 잡아 들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나는 영감이 무슨 흠이라도 잡을까 가슴을 졸였다. 이윽고 영감이 입을 열었다.

“참으로 훌륭한 그림이로다.”

흠이나 잡을 줄 알았던 그 입에서 칭찬이 나오니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이 영감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잘 그렸다는 사실에 그저 기쁘기만 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영감이 태연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이렇게 뛰어난 그림은 난생처음 보는구나.

그러니 이 그림은 내가 가져가야겠네.”

나는 귀를 의심하였다.

“예? 황공하오나, 그 그림은 소인이 그린 것입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시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감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누가 그렸든 무슨 상관이더냐. 어차피 이 마을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 네 몸 또한 내 것이요, 그렇다면 네놈이 그린 그 그림도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오나....”

영감은 내 말을 다 듣지도 않은 채 자신의 말만 이어 나갔다.

“그리 아깝다면 내 아는 화공에게 시켜 이 그림과 똑같이 여러 장 그리게 한 뒤 그 가운데 하나를 네놈에게 돌려주마. 그리하면 될 일 아니더냐.”

말을 끝낸 영감은 그림을 가지고 되돌아 갔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다.

한참이 지나고 내 입에서는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내 그림의 가치는 낙엽 날아가듯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림을 똑같이 그려 같은 그림이 두장, 세장, 수백 장이 되어버리면 이 그림이 가치 있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의 신분이 아무리 천하다고 하지만 나의 뜻도 나의 가치도 나의 재주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부디 모두의 뜻과 재주가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고개를 떨군 채 터벅터벅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